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3월 23일) 2024년 5월 1일 수요일

호스피스 기관 대폭 확대 '영적 돌봄' 제도화 준비를

복지부,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 188개소→360개소로 확대 계획
2028년 2배 수준 인프라 구축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영적 돌봄' 프로그램 개발 담아
종교계 역할 커…인재양성 과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부가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영적 돌봄'의 사실상 제도화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영적 돌봄을 주도해온 종교계 역할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신교·천주교에 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영역에서 규모가 작은 불교계에는 인재양성이라는 과제가 시급해졌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2024~2028)은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라는 기조 아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입원형은 109곳, 가정형은 80곳, 자문형은 154곳으로 확충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지난해 기준 430개소에서 2028년 650개소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설치돼 있지만 그 외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종교계 차원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합계획은 단연 '영적 돌봄'이다. 그동안 종교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도권에서만큼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영적 돌봄이 이번 계획에 주요한 내용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동향을 살펴 전인적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선 '임상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자 대상 영적 진단도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대만 역시 불교 관련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영국에선 호스피스 서비스를 통해 사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라는 명목 아래 올해부터 임종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가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영적 돌봄 프로그램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도 추진하는데, 성직자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였던 영적 돌봄이 일반 호스피스 인력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는 셈이다. 결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와 영적 돌봄 프로그램 개발이 맞물리면서 더 많은 영적돌봄가와 전문성이 요구될 전망이다.

영적 돌봄이 그동안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종합계획 의결은 불교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다만 호스피스 영역에서 이웃종교보다 후발주자로 시작한 불교계는 호스피스 관련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호스피스 전문기관인 정토마을 자재병원장 능행 스님은 〈현대불교〉에 "몇 년 전까지는 사람을 구하는 데 의료기술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환자가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 영적 돌봄이 의료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의료계도 인정한다"며 "불교는 불자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만의 연구와 임상, 실습 등이 종단차원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불교영적돌봄연구소장인 지인 스님은 오는 6월 '불교영적돌봄가협회'를 창립할 계획이다. 지인 스님은 "앞으로 영역이 점차 확대될 영적 돌봄 분야에서 불교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인재양성과 체계적인 활동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영적돌봄가협회를 만들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불교계가 영적 돌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다"고 협회 창립 취지를 밝혔다.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와 원로의원,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과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명사 33명 품서

4월 25일, 통도사서 품서식
"정진과 교화덕행의 결정체"


25조 대가사를 정대하는 스님들.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명사에 비구스님 20명과 비구니스님 13명이 품서됐다.

조계종은 4월 25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대종사 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대종사와 명사 법계는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에게 수여되는 최고법계로 종단 내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한다. 품서식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스님들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이 동참했다.

품서식에서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고불문을 낭독하며 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이어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품서자를 대표해 동명 스님과 보선 스님이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렸다. 법계증은 대종사 혜자 스님과 명사 성월 스님이, 가사는 대종사 영배 스님과 명사 혜안 스님이 대표로 받았다.

새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내린 25조 대가사를 이마 위로 정대하며 정대게송을 따라 염송했다. 지도자를 상징하는 불자 봉정과 자비를 상징하는 여의 증정도 이어졌다.

종정 성파 대종사는 "오늘 법계 품서에 임하시는 대종사·명사스님들께 사부대중과 더불어 찬탄하고 경하한다"며 "예부터 시행되어 온 법계는 출가 수행자의 수행력과 권위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의 기본이다.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는 일평생의 수행 정진과 교화덕행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대종사와 명사의 출현으로 종도들은 삼보에 대한 귀의가 간절해지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청정승가가 유지되는 원력을 키우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도들의 사표이신 대종사스님과 명사스님들께서는 종강을 바로 세워 대중이 화합하고 조계종풍을 선양하는 데 일심으로 정진해오셨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시기에 정법의 당간지주를 드높여 불조의 혜명이 면면히 계승될 수 있도록 후학들을 이끌어주시기를 양망한다"며 "청정한 수행 가풍과 종단 위상을 반석처럼 세우는데 매진하고,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공심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통해 뭇 중생이 평안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축사했다.

이날 대종사·명사스님들은 종단 승려복지 발전과 종단 직영 아미타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원하며 '승려복지 기금'을 전달했다. 특히 명사스님들은 1억원의 기금을 후원했다.

대종사 법계는 △지성·혜자(직할교구) △법전·진허(마곡사) △지근·장윤·성문(동화사) △정일·정인(해인사) △영환·도실·지정·상운(범어사) △법운·영배·원천(통도사) △도원(금산사) △동명·철산·재석(선운사) 스님이 품수했다. 명사 법계는 △법공·요명·법영·성욱·지연(직할교구) △정륜·현각(동화사) △혜안·진광·용운·성월·보선·도명(해인사) 스님이 품수했다.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